

Tracing Light : 빛으로 간 사진

이유진갤러리는 미국 서부 출신 네 명의 사진작가로 구성된 사진전을 개최한다. 본 전시는 사진의 가장 근본적인 질료인 '빛'을 이용해 사진 매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술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벤 닉슨(Ben Nixon)'은 유리판의 사진 유제가 마르기 전에 이미지를 새기는 오래된 사진 방식인 폴로디온 습판법으로 빛이 닿은 대지를 담는다. '크리스 맥 카우(Chris McCaw)'는 태양이 있는 풍경 앞에서 카메라의 셔터를 열고 빛의 긴 궤적으로 인화지를 태운다. '클리아 맥키나(Klea McKenna)'는 핀홀 카메라와 인화지로 밖의 풍경을 촬영함과 동시에 카메라 안에서 포토그램 작업을 한다. '린다 코너(Linda Connor)'는 대형카메라로 인간의 삶에 닿은 빛을 촬영하고 태양 빛 아래서 종이 위에 프린트한다. 빛과 물질을 이용한 작업하는 이들을 통해 사진의 본질과 아날로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기간 6월 7일 ~ 7월 31일까지
장소 이유진갤러리
문의 02-542-4964



Klea McKenna, Slow Burn

기울어진 각운들 The Song of Slant Rhymes

국제갤러리는 실험적인 태도와 폭넓은 상상력으로 무장한 국내 신진 작가그룹 전시회를 개최한다. '기울어진 각운들'은 남화연, 문영민, 윤향로, 이미연, 정은영, 차재민, 홍영민이 참여하고 큐레이터 김현진이 기획한 전시다. 김현진 큐레이터는 국제갤러리 2관 1층에 살짝 기울어진 육중한 흰 벽을 만들었는데, 이는 복잡다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사회적 긴장감을 은유한다. 전시제목에 따른 각운의 의미는 대칭적 각운이 아닌 불완전 운율을 상징함으로써 동시대 작가의 존재가 지니는 사회적 관계 혹은 다소 어긋나있지



문영민, 20130117

만, 여전히 울림으로 응답하는 모종의 긴장관계에 대한 은유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갤러리는 앞으로도 매년 1회씩, 발전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기획 전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간 6월 16일까지
장소 국제갤러리
문의 02-733-4819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 슈타이들展

대림미술관은 책을 예술의 경지로 이끈 출판계의 세계적 거장 '게르하르트 슈타이들(Gerhard Steidl)'에 대한 전시를 개최했다.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이라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책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슈타이들은 수많은 아티스트와 협업했고, 책 향기가 나는 향수를 개발할 만큼 책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관람객은 이 전시를 통해 책을 시각, 촉각, 후각 등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사진집의 완성도를 위해 편리한 프린팅 기술을 배제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인화를 택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슈타이들을 통해 책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것이다.

기간 10월 6일까지 장소 대림미술관 문의 02-720-0667



Hor Dream

제17회 젊은 모색 2013

국립현대미술관은 젊은 작가들의 실험정신에 초점을 맞춰 '젊은 정신'을 모색하는 '제17회 젊은 모색 2013' 전을 과천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회화, 한국화, 사진, 설치, 애니메이션 분야 작가 9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젊은 모색전은 1980년대 국립현대미술관이 제도적 관성을 깨고 젊은 의식을 대변한 전시로, 미술관의 전시 정책과 기획력을 반영한 가장 오랜 격년제 정례전이다. 지난 2010년 '젊은 모색 30년' 회고전을 계기로, 올해부터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늘렸다. 작가 선정에 있어 작가의 연령보다 작품 제작의 태도와 내용에 초점을 두고 유연하게 범위를 넓혀, 새로운 조형담론과 다양한 작가군을 조명하고자 한다.

기간 6월 23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과천)
문의 02-2188-6000



백정기, 서울

이세경 : Recollection

송은 아트스페이스는 작가의 입지를 확고히 세운 이후 현장에서 분투하는 국내 작가의 역량을 키우고,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자 매년 한국작가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그 세 번째 전시로, 이세경 작가를 선정했다. 이세경은 신체 일부로 머리에서 자라나는 동안 아름다움의 상징이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버리는 존재인 머리카락의 모순적 측면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점에 관심을 두고 머리카락을 통해 다양한 조형 탐구를 시도했다. 이번 전시는 머리카락이라는 이세경 특유의 소재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다양한 매체와 탐구방식을 전반적으로 조명한다. '회상'에 관한 단상을 조형적으로 풀이하는 신작도 감상할 수 있다.



접시 위의 머리카락

기간 6월 21일 ~ 8월 10일까지
장소 송은 아트스페이스
문의 02-3448-0100

kulturewalk

컬처워크(kulturewalk.kr)는 문화 플레이스 투어, 예술 관련 아카데미, 기업 및 단체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 문화벤처기업 쎄니사이드업